



갈린 티하노프 교수 초청 강연회:

소련에서의 전세계문학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в СССР)

지난 4월 10일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는 티하노프 교수(Queen Mary, Univ. of London)를 모시고 “소련에서의 전세계문학(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в СССР)”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티하노프 교수는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문분과로서의 비교문학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문학(Weltliteratur)’은 괴테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괴테보다 50여년 앞서 독일의 역사학자 쉐뢰쩌(Schlözer)가 아이슬란드의 사가(saga)를 연구하면서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유럽문학과 유럽 주변부의 문학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한 쉐뢰쩌와 달리 괴테는 ‘세계문학’이라는 말을 통해 세계의 각 지역의 문학들이 지닌 관계성을 강조했다.

19세기 초반의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세계문학이 지니는 관계성의 바탕에는 각 민족들이 지니는 독특한 문학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또, 한 문화권의 독자성은 다른 지역의 문화와 상호작용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해 각 문화권의 경계를 확정하는 동시에 세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각 문화가 융합된다는 ‘세계문학’의 개념이 탄생할 수 있었다. 세계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각 지역의 문학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바로 비교문학의 출발점이었다.

20세기 초반에는 『미메시스』를 쓴 아우어바흐(Auerbach)를 비롯해 인접 국가들의 문학을 비교하는 시도들이 활발했다. 1930~40년대 프랑스에서는 비교문학이 문학작품 두 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확립되었다. 한편, 영미권에서는 학생들이 더 이상 외국어로 원전을 읽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의 문학들을 번역본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비교문학은 문학의 바탕이라고 여겨졌던 언어의 특성에 갇히지 않고 번역본으로도 문학연구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비교문학의 연구 방법론은 문학과 기타 문화 분야들의 비교, 한 언어권 내에 속하는 두 문학작품의 비교 등 다양한 연구를 가능케 했다. 티하노프 교수는 비교문학을 통해 새로운 방법론들이 생겨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방법론의 한계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학적 엄밀성이 저하될지 모른다는 염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연자는 소비에트-러시아의 ‘세계문학’ 개념에 대해서 언급했다. 주로 대학에서 비교문학과를 설치하여 세계문학의 이념을 실천한 서방과 달리 소비에트는 고리키의 주도로 “전세계문학(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라는 개념을 창안해 세계 각지의 문학을 번역하여 대중에게 소개하는 일에 열성을 보였다. “전세계문학”이 모든 문학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라면, 니콜라이 콘라드(Н. И. Конрад)를 비롯한 소비에트 학자들이 강조한 “세계문학(мировая литература)”은 맑스주의적 역사 진보의 도식을 따르는 세계 각국의 문학적 관계성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시기에 설립된 세계문학전집 출판사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여 세계문학의 이념을 이어나가고 있다. 티하노프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에트-러시아의 세계문학 개념은 외국어 독해 능력의 저하를 비롯한 실제적 문제들 때문에 대두된 영미권의 비교문학/세계문학보다 우수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러시아의 세계문학은 뚜렷한 이념적 지향성과 철학적 논쟁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